



1868~1943

날으는 홍범도장군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10-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이종찬 편집인: 홍성덕
TEL: 02)734-8851~2 FAX: 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제8호

봄

2016. 3. 15



기념사업회 201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부이사장으로 홍성덕 상임이사 선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6년도 사업계획 등 의결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3월 9일(수) 저녁,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백송 한식집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종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반병률 외국어대학 교수,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원장 등 다수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종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기념사업회 창립이후 지난 10년 동안 회원들의 노고로 홍범도 장군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무장독립투쟁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했다.”고 치하하였다. 그리고 반병률 교수, 장세운 박사, 박환 교수 등이 학술회의를 통하여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과 역할을 연구하여 무장투쟁사를 정립하여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80세가 넘어 능참봉을 맡았다”고 비유하면서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광복회, 신한대학교 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 등 많은 과업을 맡아 기념사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도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 부이사장 제도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하고, 부이사장으로 홍성덕 상임이사를 선출하였다.

이어서 황원섭 이사 진행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과 2016년도 사업계획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2015년도에는 기부금 수입 1천280만 원, 보조금 3천800만 원, 회비 1천750만 원 등 합계 6천831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3페이지 결산내용 참조).

지출부분은 봉오동 전승95주년현지행사 4천292만 원, 추모식 및 학술회의의 1천148만 원 등 합계 6천270만 원을 지출하고, 2014년도 이월금과 함께 총 785만 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다.

2016년도에는 예년처럼 6월 7일에 봉오동 전승96주년 행사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25일에는 추모식과 더불어 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총서를 상반기 중에 발행하여 주요 도서관과 학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날으는 홍범도 장군” 회보는 연 4회 분기별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과 회원 기부금(회비) 1천915만원, 국고보조금 950만 원 등 합계 2천915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다.

한편 보고 안건으로는 홍범도합 진수식과 부대 창설식(4페이지 참조), KBS 1TV 3·1절 특집방송 “조선 정예부대 산포수”(5페이지 참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종찬 이사장, 도쿄 2·8독립선언 기념식에서 축하 “2·8선언은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사의 태동이며 도화선”

지난 2월 8일 이종찬 이사장은 일본 도쿄 저요다구 제 일본한국YWCA회관에서 열린 2·8독립선언 제97주년 기념식에 광복회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는 유흥수 주일대사, 이낙현 전남지사 등과 위제하 오성규 애국지사,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포함하여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8독립선언은 97년 전, 1919년 일본에 유학 중인 젊은 유학생들이 학우회 임원 선거를 구실로 조선기독교 청년회관 강당에 모이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전에 인쇄된 2·8독립선언서와 결의문, 민족대회소집청원서를 채택하였다. 독립선언서는 이미 일본정부와 각국 대사관, 일본 신문 및 잡지에 보낸 뒤였다. 당시 주동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남은 이들은 경시청 바로 앞 히비야 공원에서 2월 12일과 24일 연이어 집회를 열어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당시 이 선언에 참여했고 후에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백관수 선생은 2·8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주기를 요구한 것”이라 말하고, 김도연 선생은 “모든 항목의 요구가 실패할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해 영원히 혈전을 선포한다.”며 결의문을 낭독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회고했었다.

이종찬 이사장은 축사를 통하여 “2·8독립선언은 그 전 후에 있었던 무오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과 함께 3대 독립선언으로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하고, 2·8선언은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사의 태동이었으

며, 도화선이 되어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연결되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세계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보통 변방에서 시작되어 중앙으로 확대되는데 일제 침략의 중심지인 도쿄 한복판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이들 유학생들이 “일제에 순종했다라면 조선에 돌아와 평평거리며 살았을 텐데 이를 포기하고 일어난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애국심이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1919년 2·8독립선언을 비롯한 우리민족의 거족적인 독립선언이 오늘날 대한민국 탄생의 기초가 되었고, 민주공화국을 채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되는 역사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역사는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하여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민족적 염원이 농축되어 발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8독립선언은 10여 명의 유학생이 작업을 시작했지만 동경유학생 전체의 의사가 함축되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의 선열들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그 순간부터 민족의 자존과 자결을 찾는 운동을 일으켰고, 이런 시대적인 기운을 먼저 알아차린 청년학생들이 앞장서 횃불을 들었으며, 우리가 4·19정신을 되새기고자 함도 청년학생들의 선각자적인 활동을 높이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2015년도 수입지출 결산에 관한 홍헌일 감사 의견〉

수입과 지출, 제반 증빙서류 정확하게 관리 임원과 회원들의 회비 납부, 각별한 협조 부탁

이번 감사는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정관 제16조와 제29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과 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무처에서 작성한 수입·지출결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재산목록 및

후원금 입금통장을 비롯하여 기념사업 실적보고서를 자료로 하여 확인 점검하고 내용을 감사하였다.

홍헌일 감사는 세입 세출분야는 수입과 지출이 통장과 일치하였으며, 증빙서류도 정확하고, 과목별로 편철되어 있다고 소견을 밝히고, 임원들과 회원의 회비 납부가 부진했다고 밝히고, 회비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적하였다.

2015년도 수입총액은 6,831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6,270만 원, 2014년도 이월금 224만 원과 2015년도 이월금 561만 원을 합하여 2016년으로 785만 원을 이월하였다.

2015년 수입·지출 결산서(표 1), 회비 납부자 현황(표 2) 참조.

〈표 1〉 2015년 사업 수입·지출 결산서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전기이월금	2,235,730	① 여비 교통비	100,000
① 기부금수입	12,801,259	② 통신비	615,690
② 국가보훈처 보조금	38,000,000	③ 세금과공과금	62,500
③ 회비수입	17,500,000	④ 도서인쇄비	2,908,100
④ 예금이자	13,769	⑤ 회의비	1,229,000
⑤ 잡이익	5	⑥ 소모품비	17,300
		⑦ 지급수수료	3,068,400
		⑧ 경조비	300,000
		⑨ 행사비	54,400,985
합 계	68,315,033	합 계	62,701,975

2014년도 전기이월(2,235,730)

2015년 수입(68,315,033)-지출(62,701,975)=잔액 5,613,058

2014이월(2,235,730)+2015이월(5,613,058)=차기이월(7,848,788)

〈표 2〉 회비 납부자 현황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이 중 찬	1,190,000	홍 성 덕	1,000,000
홍 중 표	1,000,000	홍 석 록	100,000
김 유 진	100,000	홍 성 중	1,500,000
손 양 호	1,000,000	홍 이 표	1,000,000
이 길 자	1,000,000	홍 재 구	1,000,000
이 미 자	1,000,000	홍 헌 일	1,010,000
이 영 철	1,000,000	황 원 섭	500,000
이 재 규	300,000		
홍 삼 표	100,000	합 계	12,800,000

홍범도 장군 초모 사진 “가짜” 주장에 따른 논란

장세운 박사 “의형제인 엄인섭이 변절하여 일제에 제공한 사진”



3월 9일 개최된 총회에서는 10여 년 전 카자흐스탄 고려신문에서 제기한 초모를 쓴 홍범도 장군의 사진이 “가짜이며, 주인공은 홍종학”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 사진은 홍범도 장군 평전

이나, 자료집에 게재된 사진이며 중국 도문시 수남촌 마을회관 봉오동전투 관련 전시자료는 물론,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도 게시되는 등 널리 알려진 사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장세운 박사(동북아역사재단)와 반병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권위있는 홍범도 연구학자로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장 박사는 이 사진은 일제의 정보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는

출처를 밝히고, 홍 장군과 의형제인 엄인섭이 변절하여 일제에 제공한 1910년대의 홍 장군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반 교수도 사진의 출처로 보아 홍범도를 추적하던 상황에서 일제가 수집된 자료로 실제 사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준진 사무총장은 젊은 시절 사진이지만 얼굴의 턱 모양이 달걀형으로, 4각형에 가까운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홍종학의 인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동일 인물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홍종학의 진위 여부는 북한출신이라 어려운 문제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진위를 확인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일단 진위 여부가 밝혀지면 “가짜”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서 주도하여 충분한 해명을하기로 하였다.

곽승지 연변과기대 교수, 방송통신대 명사초청 강의 “바람직한 통일논의를 위한 새로운 접근”



〈곽승지 교수, 강좌 화면〉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곽승지 교수가 지난 2월 12일 방송통신대학교 초청으로, 동 대학 TV 스튜디오에서 “바람직한 통일논의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명사초청 강좌가 개최되었다. 이날 2시간 동안 녹화된 강의내용은 3월 21일 방송통신대 강좌로 방송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작년 6월 중국 도문시 수남촌에서 거행된 봉오동전투 전승95주년기념행사에 곽 교수와 함께 참석했던 인연으로, 홍범도장군기념회에서 홍이표, 이미자, 황원섭 이사과 애지모 회원 등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동북아 국가와 주민들이 더불어 살기 위한 대륙적 상상력 필요

이날 강좌에서는 통일논의의 조건과 방향, 시대상황과 통일환경의 변화, 통일담론의 문제점과 한계, 중국 동북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와 조선족 동포의 역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통일논의의 비전과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곽 교수는 통일환경과 관련된 주변정세 변화로 민주화 세계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되었고, 북한도 비정치 군사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인접 동북아 정세도 탈냉전체제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통일담론의 변화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통일담론 1.0단계는 냉전 시기 국가중심의 체제 경쟁적 통일논의이며, 통일담론 2.0는 탈냉전시기 기능주의적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일논의였

고, 통일담론 3.0은 통일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향에 의한 통일논의라고 제시하였다.

앞으로 통일 논의의 방향은 첫째 한반도와 한민족을 넘어 동북아 역내의 평화변영을 위한 비전이 필요하고, 둘째 과거와 현재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며, 셋째 공간적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와 주민들이 더불어 살기 위한 대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일논의는 정권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보편성을 확보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과 재외 동포들의 관심을 반영해야 되며, 주변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통된 이익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동북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와 조선족 동포의 역할을 제고해야

특히 곽 교수가 강조한 부분은, 중국 동북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와 조선족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동북지역은 북한의 유일한 외부세계 접촉로이며, 조선족 동포들이 통일이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조선족 동포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곽 교수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통일 담론은 냉전적 사고에 따른 정치군사적 접근과 남한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시대 상황의 변화와 남북한 및 국제질서 등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사구시적이고 실천 가능한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실적 과제로 중국 동북지역의 통일지정학적 가치와 조선족 동포들의 역할 제고를 제시하였다.



〈강좌에 참석한 기념사업회 회원〉

“홍범도함” 진수, 해군 잠수함 7번함으로

배수량 1,800톤, 최대시속 20노트, 순항 미사일 장착

일제강점기 의병투쟁과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대파한 여천 홍범도 장군이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해군의 최신에 잠수함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2월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214급 잠수함 7번함의 함명을 ‘홍범도함’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홍범도함은 4월 초 진수하여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해군의 기존 214급 잠수함은 1번함인 손원일함을 비롯해 정지함,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등 6척이 있으며, 홍범도함은 7번함이 된다.

1번함은 해군을 창설한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이름을 따고 2번함은 고려시대 수군을 창설해 왜구를 무찌른 정지 장군의 이름을 따다. 3번함부터는 항일독립운동가의 이름을 함명으로 쓰고 있다.

홍범도함은 배수량이 1,800톤이며 길이 65.3m, 폭 6.3m에 최대속력은 20노트(시속 37km)다. 승조원은 40여명이며 어뢰와 기뢰뿐 아니라 국산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적의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 잠수함은 대령급 장교가 지휘한다.

214급 잠수함(TYPE 214)은 독일 HDW사에서 건조한 209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하여 212급 잠수함 개발로 얻은 신기술을 적용, 개발한 신형 디젤 잠수함이다. 그리스가 최초로 3척을 주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3척을 주문했다. 이후 포르투갈도 2척을 주문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1번함을 건조하여 “손원일급 잠수함”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은 KSS-II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에 각각 건조했고, 2016년까지 추가로 건조하여 7대의 214급 잠수함을 운용할 계획이다.

214급 잠수함은 212급에 비해 압력과 선체 재질이 향상되어 최대 잠수심도가 400미터 이상이며, 8개의 어뢰관 중 4개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시스템의 성능은 지멘스 연료전지를 사용하며, 연료전지 1개당 120kw의 출력이 가능하여 2개의 연료전지를 탑재할 경우 2주간의 잠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스텔스 특성과 프로펠러의 저소음은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더욱 감소시키며, 유선형 세일과 X글자 잠수키를 채용한 선진적인 스타일의 212형태와는 다르고, 베스트 셀러 수출 잠수함인 209형태 잠수함에 가까운 보수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다.

해군은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최신에 잠수함 함명으로 정함으로써 백전 백승한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사업회에서는 홍범도함 진수식과 부대창설식에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참석 희망 회원을 모집 중이다.



KBS 제1TV, 3·1절 특집 “조선 정예부대 산포수” 방영 홍범도 장군의 의병활동과 독립군 집중 부각

“뛰어난 전술로 호랑이 대신 일제를 향해 총을 겨누다”

호랑이를 잡던 산포수들이 호랑이 대신 일제를 건양하고, 뛰어난 전술로 외세의 침략을 막은 조선 정예부대 “타이거 헌터(Tiger Hunter)”의 대일 항쟁기를 KBS 제1TV에서 발굴하여 방영하였다.

지난 3월 1일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이상호 아나운서 진행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등 3국을 취재하여 방송사상 최초로 산포수들의 국난극복 항쟁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였다.

이 방송에서는 산포수들에 대한 일화로 “경군(京軍)은 향군(鄕軍)만 못하고 향군은 포수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소개했다. 산포수로 불리는 산척 혹은 산행 포수의 존재는 조선 태종 시대에 처음 등장한다.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던 전문부대인 ‘착호갑사’는 ‘착호군’으로 조직화되었다. 이들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로 외세가 침략하자 가장 강력한 조선의 정예부대가 되어 활약해 왔다. 구한말 의병항쟁에 투신한 산포수들은 일제강점기를 들어서자 독립군이 되어 치열한 무장항쟁을 펼치게 된다. 조선 5백년 역사에 걸쳐 국난극복의 주역인 조선정예부대 ‘산포수’를 발굴 추적하였다.

신미양요의 주역, 산포수 ‘타이거 헌터’의 활약을 미 해군 사관학교 자료로 방영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최일선에서 활약한 산포수들에 대한 자료를 한국과 미국, 중국 3개국에서 취재를 통해 조선 정예부대인 산포수, 일명 ‘타이거 헌터’의 흔적을 찾았다.



〈미 해군사관학교 소장 산포수부대 깃발〉

미국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신미양요 당시 산포수 부대, ‘타이거 헌터’의 역할을 방영한 것이다. 미군의 기록과 조선에서 노획한 무기를 통해 목숨을 걸고 외세에 저항한 산포수 부대의 장

렬한 전투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미양요 연구 전문가인 토마스 듀버네이 교수는 당시 조선군이 사용한 화승총과 탄환을 공개했다. 미군조차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고 평가한 신미양요의 최고 전사는 바로 산포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구 열강의 침략을 격퇴한 병인양요에서도 산포수를 주축으로 한, 조선군은 근대식 병기로 장비한 프랑스군을 공격하여 막아내는 쾌거를 이룬다.

산포수 출신 홍범도 장군, 독립군을 조직하여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새 역사를 기록

1919년 3·1운동을 전후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만세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을 시기에, 한반도 북쪽에서는 산포수 독립군이 일제와 무장항쟁을 펼치고 있었다. 산포수 출신인 홍범도 장군이 함경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맞서 치열한 전투 끝에 승전을 거둔 내용이 방영되었다. 이어서 장세운 박사(동북아역사재단)와 수남촌 라철용 총장의 해설과 안내로 산포수들이 독립군을 조직화하면서 봉오동 전투에 이어 청산리 대첩에 이르기까지 항일 무장항쟁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3·1운동을 기폭제로 평화적인 항일운동에서 치열한 항일투쟁으로 변화한 역사 속에 산포수 독립군의 존재를 조명하였다.



〈산포수 출신인 홍범도 장군〉

이번 특집에서는 국난극복의 주역이었으나 그 동안 역사에서 망각된 산포수의 항일투쟁과 ‘날으는 홍범도 장군’ 곁에서 의병투쟁을 하다가 산화하여 “만주에 묻힌 산포수 독립군의 존재를 기억하고,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조국에 묻힐 수 있기를 소망하는...” 유족의 절규를 담아, 이제부터라도 항일 무장항쟁의 주축이었던 산포수 독립군의 역사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소명임을 각성해야 되겠다.

김유진·이천우 공저, “끝나지 않은 독립전쟁, 피어린 장백산”(상, 중) 피와 혼으로 조국을 밝힌 독립의병들의 절규!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의병들의 활동을 그려낸 책으로 저자는 일제의 그늘에 가려진 채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과, 그 비밀 속에 묻혀있는 우리 민족과 조상들의 처절한 한과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과 독립투사들의 한과 열을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독립은 아직 오지 않았다. 분단된 남북의 어두운 현실, 일본과의 청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들, 과거에 눈 감는 자는 미래에 대해서도 장님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일제의 만행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을 수는 없다. 이 글이 과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잠언록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웃음을 여미어 겸허한 마음으로 필을 들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모두 상, 중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 첫째 장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의 군대해산 음모에 분개한 “박승환 참령의 자결”과 강제 퇴위 당하는 고종황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둘째 장에서는 “군대해산 칙어를 받아낸 음모” 제목 하에 일본군 관저에서 통보된 군대해산과 강제 해산 당하는 대한제국군을 다뤘다. 셋째 장에서는 “의병의 꽃을 피운 순국의 피” 제목으로 주로 불출세의 명장 홍범도의 항일전을 기술했다. 항일 깃발을 올린 홍범도 의병대, 후치령 전투의 뼈아픈 교훈, 신출귀몰, 연전연승 깃발을 들다, 당근과 채찍 회유작전을 펴는 왜군의 흥계, 홍범도 가족을 인질로 잡는 술책, 홍범도 장군의 부인 이옥녀 여사의 죽음과 아들을 쓴 홍범도. 영원한 이별에 대장부의 뜨거운 눈물이란 소제목으로 전개했다. 넷째 장에는 “안중근 영웅이 시대를 만드나니”란 제목으로 총없는 독립전쟁 국채보상운동, 산하에 지는 의병의 꽃들, 홍범도 의병장의 목에 십만 환을 걸어라! 차도선 의병장의 귀순, 백두산으로 진지를 옮기는 홍범도 의병대, 위기에 처한 홍범도 의병부대, 의병부대 해산 만주로 가는 홍범도 의병장이란 내용으로 안중근과 홍범도 의병부대의 활약상을 그렸다.

중권에서는 뿌리내리는 항일 무장투쟁 제목으로 연해

주로 가는 홍범도, 신의와 배신, 장백산에 온 홍범도를 기술하고, 이어서 봉오동 대승첩과 일본의 음모, 아! 민족혼이며, 청산리의 영웅들이여! 제하에 백운평 전투, 완루구 전투, 어랑촌전투, 멍개골 전투와 청산리의 마지막 승전으로 글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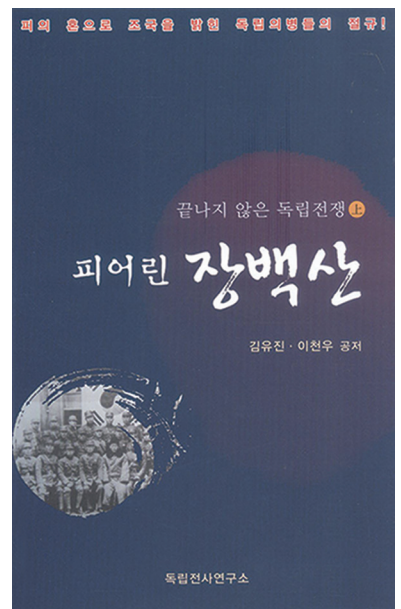
필자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군맥(軍脈)이 1940년 광복군이 창설될 때까지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광복군 보고서에는 광복군 창설은 1940년이지만 실제로는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되고 의병으로부터 시작하여 독립군으로 이어졌고 광복군이 성립됨에 따라, 단 하루도 군맥이 단절된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군맥의 단절은 국맥의 단절이며 민족의 맥이 끊긴 것을 의미한다면, 광복군의 전사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대부분이 의병으로 구국 전선에 나섰고, 의병은 더 나아가서 독립군으로 발전했다. 계급도 군번도 월급이나 신분의 보장도 없이 오직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일어난 의병, 찬바람 모진 서리에 이름없는 산하에서 험하고 굶주리면서도 광야의 이름없는 들꽃처럼 생명을 던져 조국을 덮으려 했던 의병들의 열정을 묘사했다.

필자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해방의 날로 정하고 있지만, 반쪽의 해방이며 반쪽의 광복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광복과 해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광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끝을 맺었다.

독립전사연구소 간행, 281쪽, 가격 1만원

(정리: 홍성덕 상임이사)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이 이사장은 지난 3월 4일 오후 우당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제41차 우당역사문화강좌에 강사로 초청되어,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사장은 정치에 참여했던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한국 정치의 모순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 정치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우재 고문



(사)매헌윤봉길의사 월진회 이사장인 이 고문은 오는 4월 29일(금) 윤봉길의사 4·29 상해의거 84주년을 기념하여 일진회 주관으로 “예산에서 터지는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제43회 윤봉길문화축제를 예산 충의사에서 개최한다.

○김유진 고문



김 고문은 지난 2월 25일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4·18기념사업회는 의거 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손양호 이사



무궁수훈자회 서울종로 지회장인 손 이사는 3월 26일 종로보훈회관 강당에서 2016년도 총회를 주관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전적지순례 개최문제를 협의한다. 한편 지난 1월 17일에는 임원들과 함께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였다.

○홍성중 이사



(주)토금산업 대표이사인 홍 이사는 3월 16일 서울동대문청소년회관에서 개최된 남양홍씨남양군파대중친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한다.

홍이사는 매트리스 자재를 생산하면서 품질개선과 관련된 특허 2건을 출원중이다.

○홍이표 이사



애지모(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 모임) 대표인 홍 이사는 애지모에서 학부모 비전 스쿨과 청소년스쿨을 연 2~3회 3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15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진학과 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준비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진익산 이사



진 이사의 장녀, 진은정 양이 2월 27일 오후, 신도림 웨스턴베니비스 웨딩홀 7층 아스타홀에서 결혼식을 거행되었다.

○이동순 교수



민족서사시 홍범도(전 10권) 저자인 영남대 명예교수는 작년 10월 30일 계명대학교 한국대중음악힐링센터 대표로 취임하고, “노래로 들어보는 한국 현대사(YouTube 동영상)”라는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다

○장세운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원장인 장 박사는 3월 1일 KBS 1TV에서 3·1절 특집으로 방영한 “조선 정예부대 산포수”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홍범도 장군의 의병활동과 봉오동·청산리전투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라철용 총장



중국 도문시 수남촌 라 총장은 지난 2월 8일 연변 TV에서 방영한 ‘TV 문화를 품다’ 프로그램에서 수남촌을 배경으로 조선족의 설 명절 풍습을 담아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재연하였다.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들이 모여 차를 지내고, 모든 가족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모님, 조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장면과 윷놀이와 떡만드는 광경, 제기차기, 농악놀이 등 자랑스러운 고유 민속놀이를 공연하였다.

○문준진 사무총장



문 총장의 외아들 문지용 군이 지난 1월 16일(토)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한편 (주)아이사 대표이사로 카자흐스탄 기업과 캡사인신 제조플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김도경 국장



한국여성문예원 원장인 김 국장은 3월 18일(금) 오후 5시, 명동 라운지 온 썬스 카페에서 제5회 진달래 꽃 제하의 명동 시낭송 콘서트를 주관한다.